

이슈 분석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과 영향 요인¹⁾

장현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류지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위원

I. 논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을 실감하였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미래의 직업 세계 모습을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선진국에서만 5년 내에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WEF, 2016). 이처럼 10년, 20년 후의 미래 직업세계는 현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고 그 변화 속도도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초·중등학교 학생이 향후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때에는 보다 빠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진로와 직업을 개척해 나가야 하고,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학교 진로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도 학생에게 특정 직업을 단순히 매칭해서 알려주기보다는 앞으로 변화무상한 미래의 직업세계에서 창의적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학습하며,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2).

이 글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1) 본고의 분석 결과는 ‘장현진 외(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2015),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THE HRD REVIEW의 취지와 원고 서식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임.

을 측정하고, 학교, 개인 및 가정에서의 지원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학생이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각종 진로 활동에 대한 참여가 실제로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 이를 통하여 향후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장현진 외, 2015)’의 결과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단위 표집을 통해 초등학생 7,442명, 중학생 10,728명, 고등학생 10,910명으로부터 조사된 결과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 도구로 조사하였으며 초등학생 20문항, 중학생 20문항, 고등학생 2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진로개발역량은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도이다. 설문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의 합을 다시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전체 수준은 초등학생은 5점 만점에 4.29점, 중학생은 3.85점, 고등학생은 3.70점이었다. 학교급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영역별로 어떠한 수준을 나타내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은 자기이해와 사회성이 4.48점으로 가장 높고, 진로탐색은 4.0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학생은 자기이해와 사회성이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이해가 3.6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등학생은 자기이해와 사회성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진로탐색이 3.5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학교급별 및 진로개발역량 하위 영역별

(단위: 점)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영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① 자기이해와 사회성	4.48	(0.57)	4.05	(0.71)	3.92	(0.72)
② 직업이해	4.39	(0.62)	3.69	(0.80)	3.62	(0.75)
③ 진로탐색	4.01	(0.83)	3.86	(0.77)	3.57	(0.77)
④ 진로설계와 준비도	4.23	(0.73)	3.72	(0.81)	3.66	(0.78)
전체	4.29	(0.59)	3.85	(0.67)	3.70	(0.78)

주: 1)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토대로 하여 초등학생 20문항, 중학생 20문항, 고등학생 21문항으로 측정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하였음.

2) 학교급별로 서로 다른 수준의 문항으로 측정된 결과이므로, 학교급별 비교는 의미가 없음.

3) 각 문항의 합을 문항수로 나누어 5점 만점의 평균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음.

자료: 장현진 외(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와 같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은 초등학생은 진로탐색 영역, 중학생은 직업이해 영역, 고등학생은 진로탐색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이 어려워하거나 부족한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을 통하여 필요한 진로교육 자료 및 정보의 지원이 요구된다.

Ⅲ. 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학교, 개인 및 가정 변인과의 관계

여기서 진로개발역량과 관련이 있는 학교, 개인 및 가정 변인은 학교에서의 진로활동, 학생 개인의 진로목표 여부,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 등을 살펴보았다. 각 변인에 따라 차이분석 또는 상관관계 분석이 활용되었다.

1. 학교 진로활동 경험과 진로개발역량 수준

학교 진로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참여 여부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초등학생은 진로상담을 받은 학생이 4.36점, 진로체험을 받은 학생이 4.37점, 수업 중 진로탐색을 경험한 학생이 4.34점으로, 각각 경험하지 않았다는 학생에 비해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높았다. 중학생은 진로수업을 받은 학생이 3.88점, 진로심리검사를 한 학생이 3.89점, 진로상담을 받은 학생이 3.92점, 진로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이 3.97점, 진로체험을 받은 학생이 3.90점으로, 각각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았다는 학생에 비해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높았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진로수업을 받은 학생이 3.72점, 진로심리검사를 받은 학생이 3.74점, 진로상담을 받은 학생이 3.79점, 진로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이 3.83점, 진로체험을 경험한 학생이 3.77점으로 각각 경험하지 않았다는 학생에 비해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이, 초·중·고등학생 모두에서 학교 진로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활동별 경험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는 t값의 크기로 볼 때, 초등학생은 진로체험, 중학생은 진로상담과 진로체험, 고등학생은 진로상담과 진로체험 및 진로동아리가 다른 진로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진로활동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증진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학교 진로활동 경험에 따른 학생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차이

(단위: 점)

학교 진로활동 경험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편차	t(p)	평균	표준편차	t(p)	평균	표준편차	t(p)
진로수업	예	-			3.88	(0.6)	10,278 (0.000)***	3.72	(0.66)	8,050 (0.000)***
	아니요				3.65	(0.7)		3.58	(0.70)	
진로심리검사	예	-			3.89	(0.65)	12,573 (0.000)***	3.74	(0.66)	11,716 (0.000)***
	아니요				3.69	(0.71)		3.55	(0.69)	
진로상담	예	4.36	(0.56)	12,532 (0.000)***	3.92	(0.67)	14,626 (0.000)***	3.79	(0.67)	17,825 (0.000)***
	아니요	4.19	(0.60)		3.73	(0.66)		3.56	(0.64)	
진로동아리	예	-			3.97	(0.71)	12,805 (0.000)***	3.83	(0.68)	16,285 (0.000)***
	아니요				3.79	(0.65)		3.62	(0.65)	
진로체험	예	4.37	(0.55)	15,033 (0.000)***	3.90	(0.65)	13,734 (0.000)***	3.77	(0.66)	16,790 (0.000)***
	아니요	4.15	(0.62)		3.69	(0.70)		3.54	(0.66)	
수업 중 진로탐색	예	4.34	(0.56)	13,214 (0.000)***	-			-		
	아니요	4.12	(0.64)							

주: *p<.05, **p<.01, ***p<.001
 자료: 장현진 외(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 분석

학교 진로활동의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진로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각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간에는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의 크기로 볼 때 대체로 0.4점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교 진로활동의 참여 여부와 같은 양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각 활동이 질적으로 우수하여 학생에게 만족을 주는지에 따라 실제로 진로개발역량 수준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교에서 양질의 진로활동을 제공할수록 학생 진로개발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간의 상관관계

(단위: 점)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진로수업 만족도	-	0.395(0.000)**	0.400(0.000)**
진로심리검사 만족도	-	0.425(0.000)**	0.411(0.000)**
진로상담 만족도	0.445(0.000)**	0.412(0.000)**	0.420(0.000)**
진로동아리 만족도	-	0.401(0.000)**	0.415(0.000)**
진로체험 만족도	0.399(0.000)**	0.371(0.000)**	0.385(0.000)**
수업 중 진로탐색 만족도	0.434(0.000)**	-	-

주: 1) 값은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 괄호 '(''는 유의확률 p값

2) *p<.05, **p<.01, ***p<.001

자료: 장현진 외(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근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등에 따라 진로체험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진로체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진로체험의 세부 유형에 따른 참여 여부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진로체험의 유형에 있어서 참여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진로개발역량 수준을 보였다. 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인 멘토·특강, 현장견학, 학과체험,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및 진로캠프 등 각종 진로체험 활동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에 따른 학생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차이(중학생)

(단위: 점)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평균	표준편차	t(p)
직업인 멘토·특강	예	3.94	(0.65)	15.756 (0.000)***
	아니요	3.73	(0.68)	
현장견학	예	3.95	(0.65)	16.323 (0.000)***
	아니요	3.74	(0.67)	
학과체험	예	3.99	(0.69)	13.487 (0.000)***
	아니요	3.79	(0.65)	
현장직업체험	예	3.96	(0.68)	13.612 (0.000)***
	아니요	3.78	(0.66)	
직업실무체험	예	4.04	(0.68)	18.524 (0.000)***
	아니요	3.77	(0.65)	
진로캠프	예	4.03	(0.70)	15.501 (0.000)***
	아니요	3.79	(0.65)	

주: *p<.05, **p<.01, ***p<.001

자료: 장현진 외(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한 진로체험 유형별로 참여한 중학생이 느끼는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 수준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진로체험의 유형에 있어서 만족도는 진로개발역량 수준과 긍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도 모두 0.4점 이상으로 양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서 학교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생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요구에 맞고 질적으로 우수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5. 진로체험 유형별 만족도와 학생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상관관계(중학생)

(단위: 점)

진로체험 유형별 만족도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직업인 멘토·특강 만족도	0.414(0.000)**
현장견학 만족도	0.442(0.000)**
학과체험 만족도	0.459(0.000)**
현장직업체험 만족도	0.468(0.000)**
직업실무체험 만족도	0.459(0.000)**
진로캠프 만족도	0.444(0.000)**

주: 1) 값은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 괄호 '(')는 유의확률 p값

2) *p<.05, **p<.01, ***p<.001

자료: 장현진 외(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학생의 희망직업 유무와 진로개발역량 수준

학생의 개인 변인 중에서는 희망하는 진로나 직업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은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4.34점으로 희망직업이 없는 학생의 3.78점에 비해 높았다. 중학생 가운데 희망직업이 있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은 3.96점으로 희망직업이 없는 학생의 3.55점에 비해 높았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희망직업이 있는 학생은 3.79점, 그렇지 않은 학생은 3.30점으로 희망직업을 가진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이 학생이 자기 나름대로 목표로 하는 희망진로나 직업이 있는 경우 진로에 대하여 보다 많은 생각과 탐색 및 준비를 하여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생 개인이 진로목표를 가지고 보다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환경과 진로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표 6. 학생의 희망직업 유무와 학생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차이

(단위: 점)

구분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편차	t(p)	평균	표준편차	t(p)	평균	표준편차	t(p)	
희망직업 유무	유	4.34	(0.55)	20.07 (0.000)***	3.96	(0.64)	28.7 (0.000)***	3.79	(0.63)	18.352 (0.000)***
	무	3.78	(0.68)		3.55	(0.67)		3.30	(0.67)	

주: *p<.05, **p<.01, ***p<.001

자료: 장현진 외(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와 진로개발역량 수준

가정 변인 중에서 학생이 부모와 함께 진로와 관련한 대화를 얼마나 나누는지에 따라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대화 주제는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적성과 흥미)’과 ‘나의 미래 직업(진로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대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매일이고, 가장 낮은 것은 두 달에 1회 이하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초·중·고등학생 모두에 있어서 두 가지 대화 주제 모두에 대하여 부모와의 대화 빈도에 따라 학생 진로개발역량의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일 부모와 대화한다는 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은 4.53점으로, 두 달에 1회 이하로 대화하는 학생의 3.85점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미래 직업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매일 대화한다는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은 4.32점으로 높은 반면, 두 달에 1회 이하로 대화하는 학생은 3.40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부모와 함께 진로와 관련한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부모와의 대화 정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차이

(단위: 점)

부모와의 대화 정도		학생 진로개발역량 수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편차	F(p)	평균	표준편차	F(p)	평균	표준편차	F(p)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a. 두 달에 1회 이하	3.85	(0.68)	243.96 (0.000)***	3.38	(0.78)	493.270 (0.000)***	3.29	(0.71)	499.204 (0.000)***
	b. 월 2회 정도	3.98	(0.59)		3.62	(0.55)		3.51	(0.56)	
	c. 주 1회 정도	4.12	(0.57)		3.69	(0.58)		3.63	(0.58)	
	d. 주 2~3회 정도	4.28	(0.51)		3.91	(0.57)		3.83	(0.58)	
	e. 매일	4.53	(0.51)		4.23	(0.67)		4.20	(0.71)	
나의 미래 직업(꿈, 진로 희망)	a. 두 달에 1회 이하	3.86	(0.65)	302.547 (0.000)***	3.40	(0.73)	573.958 (0.000)***	3.31	(0.70)	501.32 (0.000)***
	b. 월 2회 정도	4.09	(0.55)		3.65	(0.56)		3.53	(0.57)	
	c. 주 1회 정도	4.23	(0.54)		3.73	(0.58)		3.65	(0.58)	
	d. 주 2~3회 정도	4.39	(0.48)		3.97	(0.57)		3.85	(0.59)	
	e. 매일	4.60	(0.49)		4.32	(0.66)		4.23	(0.71)	

주: 1) *p<.05, **p<.01, ***p<.001

2) a. 두 달에 1회 이하, b. 월 2회 정도, c. 주 1회 정도, d. 주 2~3회 정도, e. 매일

3)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생(a<b, a<c, a<d, a<e, b<c, b<d, b<e, c<d, c<e, d<e), 중학생

(a<b<c<d<e), 고등학생(a<b<c<d<e)

4) 나의 미래직업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생(a<b, a<c, a<d, a<e, b<c, b<d, b<e, c<d, c<e, d<e), 중학생(a<b<c<d<e), 고등학생(a<b<c<d<e)

자료: 장현진 외(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고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의 성과 또는 성취 수준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각종 진로활동, 개인의 진로목표 설정 여부,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을 보면 초등학생은 자기이해와 사회성이 높았고 진로탐색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중학생은 자기이해와 사회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직업이해는 낮았다. 또, 고등학생은 진로탐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비하여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진로개발역량 영역이 있다. 이처럼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타 영역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진로개발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을 통한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에의 참여 여부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학교 진로활동에의 참여가 학생의 미래 진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학교 진로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교육단계별로 각 진로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차이와 t값에 따른 각 활동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은 특히 진로체험, 수업 중 진로탐색 등의 순으로, 중학생은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등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이처럼 학교급별로 중요도가 높은 진로 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의미 있는 경험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아울러 학교에서 각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나 진로체험 유형별 만족도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진로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진로활동 프로그램이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질적으로 우수하게 제공된다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육단계의 진로활동에 있어서 유사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학교 진로활동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학생의 개인 변인으로 희망하는 진로(직업)가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에 비하여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높았다. 진로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준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의 진로에 대한 목표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는 희망 진로의 설정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본 것으로 그 희망 진로가 초기 단계에 설

정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후의 진로활동이나 학습 경험을 통해 탐색하고 유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정 변인으로 부모와 진로 관련 대화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높았다. 이는 가정의 자녀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학생의 미래 진로를 위한 준비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지나친 규제나 스트레스로서의 진로 관련 대화라면 역효과일 수 있겠으나 학생의 필요에 따른 진로 관련 대화와 가정에서 학생의 미래 진로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정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단순한 대화 빈도뿐만 아니라, 질적 깊이나 부모의 관여 방식 유형,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가정적인 요인들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로활동을 경험하고 진로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로 나아갈 시점은 현재로부터 10~20년 뒤의 일이며 이 시기는 현재보다 사회적 변화가 더욱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대에 창의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며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진로교육의 확대,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제공 등을 통해 학생이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고 필요한 학습과 경험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에 이어 초·중·고등학교에 자유학기제와 연계될 수 있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운영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학교의 진로교육 강화에 있어 교육단계별 주안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초등

학교 단계는 전통적으로 진로인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는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을 강화함으로써 증진할 필요가 있다. 또, 진로교육의 방법론에 있어서 진로체험의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초등학교 단계임을 고려하면 학교 내에서의 간접 및 모의 체험 방식도 유용할 것이다. 중학교 단계는 전통적으로 진로탐색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이 외에도 직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탐색을 기반으로 한 진로설계나 준비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상담이나 진로체험을 활성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학교 단계에서 부터는 학생의 특성이나 발달수준이 더욱 상이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과 더불어 진로체험 활동 등의 방식이 보다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단계는 대학 입시나 취업과 같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므로 진로경로와 연관된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 등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현실의 모습을 보다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진로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더욱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지금까지의 입시에 치우친 교육을 벗어나 향후 진로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등학생은 진로선택의 폭도 넓고 경로도 다양하므로 좀 더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로동아리나 진로체험을 통해 수요가 유사한 소그룹 학생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구체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진로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앞서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단순한 진로활동에의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학생의 만족도에 따라 진로개발역량 수준과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그동안 진로교육이 양적으로 많은 팽창을 해왔고 학생의 인식에 있어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의 진로교육이 2.0버전이었다면 앞으로 3.0버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강화된 프로그램과 학생 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 유형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진로활동들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높았고, 학교급별로 특별한 차이 없이 일관적이었다. 이는 모든 학교급에 있어서 진로활동이 학생에게 의미가 있도록 설계되고, 좀 더 질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또 진로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그 수요에 부합되도록 보다 맞춤형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도 지속적인 강조가 요구된다. 학교에서는 보편적인 수준의 진로교육을 제공하지만 가정에서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학부모들이 그들 세대에서의 사고방식으로 학생에 대한 진로지도를 하게 되면 학생이 미래에 살아가기 위한 준비나 역량을 갖추는데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이나 사고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학부모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창의적인 진로개발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 대한 진로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의식 개선과 가정에서의 진로교육이 향상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자녀와 진로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과 진로 관련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진로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의 진로경로와 관련한 진학경로 탐색 지원, 취업 분야 및 현장실습 등 보다 직접적인 사항별로 학부모의 관심사에 따른 집단별 지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지원을 요구하듯이, 그 시기의 학생에 맞는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도 단계별 체계성과 구체성의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관계 설정과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학교에서의 진로활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초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각 진로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있는 요인과 절차적 설계가 반영되고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학교급별로도 보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의 일반화가 추진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 설계와 분석이 요구될 것이다. 진로교육의 효과 변인도 현재는 진로개발역량이라는 1단계 설정만을 고려하였으나 더 나아가면 학습동기, 학교생활 태도, 개인의 직업기초역량 등의 향상까지 여러 가지의 변인에 미치는 2단계 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계를 토대로 하여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 설계가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 앞으로 진로교육에 따른 학생의 변화된 모습을 진단하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활동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육부(2012).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교육부 보도자료(2012. 4. 23.).

장현진(2016). 「진로교육법」 제정과 진로교육의 미래. 『THE HRD REVIEW』, 19(1): 66-8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현진 · 김민경 · 류지영 · 윤수린 · 유미애(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2015).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사랑이 희망입니다.